

교통사고로 목을 다쳤을 때 후유증



교통사고 환자 중 후방 충돌로 목을 다친 뒤 잘 낫지 않아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고 당시는 정신이 없어서 별 통증을 모르다가 다음 날 아침 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습니다. 보통 후방 충돌로 경추부에 과신전이 생기면서 인대 손상을 입는데 흔히 “편타증”이라고 부릅니다. 치료 초기에는 침상 안정, 경부 보조기 착용, 소염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사용하며, 통증이 감소하면 온열 요법, 마사지, 운동요법 등 물리치료를 합니다.

윗목이 아프고, 손과 팔이 저리고 감각이 이상해요

외래에서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많이 접합니다. 이럴 때 의사들은 수 많은 경추부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중 가장 흔한 “근막통 증후군”, “경추 추간관 탈출증”, “경추 협착증”을 의심하고 신경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데,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 예후와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첫째, 신경학적인 증상 없이 목 뒤쪽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는 경우 흔히 “근막통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합니다. 근막통 증후군은 보통 “근통”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스트레스, 교통사고, 무리한 운동,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목 주변 근육, 인대 등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질환이 아니라면 대개 진통소염제, 근이완제, 물리치료 등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와 같이 보상문제가 관련 있는 경우 예상외로 증상이 오랫동안 호전되지 않다가 보상문제가 해결되면서 스트레스가 풀려 증상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둘째, 목이 아프면서 어깨와 팔로 저린 증상이 퍼지는 경우입니다. 또 한쪽 손과 팔에 힘이 빠지면서 주먹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들은 “경추 추간관 탈출증(흔히 목 디스크)”을 의심합니다.

목 디스크는 허리보다 흔치 않으나 초기 증세는 경추부 동통과 근육 강직이며, 증상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견관절 동통, 견갑골 내측에



김 주 성 원장

現 대구현대병원 병원장


약력 함림대학교 정형외과 외래부교수,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초빙교수, 대구경북병원회 재무이사, 대한수부외과학회 평의원, 대구경북정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학술이사, 아시아태평양 수부외과학회 부회장, 세계수부외과학회, 국제외상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골절학회 정회원, 영진전문대학 겸임교수, 대한병원협회 사업이사, 전국통신기자협회 이사장, (주)텔레케어 코리아 대표이사, (주)이호스피탈코리아 대표이사, (주)엠에스엔티 대표이사

따라 방사통, 전흉부 동통, 상원부와 전완부 동통과 쇠약, 수지의 감각 둔화 등을 동반합니다.
 보통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연성은 수핵의 팽윤이나 탈출로 인해 신경근이나 척수가 압박되는 것이고, 경성은 골관절증으로 형성되는 골극에 의해 척수나 신경근이 압박되는 것입니다.

연성추간판 탈출증은 30~40대에 많이 생겨

경성 추간판 탈출은 50세 이후에 잘 오고, 연성 추간판 탈출은 30~40대에 많이 생깁니다.
 진단은 환자의 호소에 따라 이학적 검사를 한 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 척추체 간격이 좁아지고, 곡선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되며,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근이 눌린 해당 근육의 마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척수 조영술, 경추의 전산화 단층 촬영술(CT)과 자기공명영상(MRI) 등으로 신경이 압박되는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먼저 충분한 침상안정, 경부 견인, 진통소염제와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보조기로 경부 운동을 제한합니다.

셋째, 목의 통증은 심하지 않으면서, 손과 발이 저리거나 힘이 없고 걷기가 힘들고 손과 팔의 통증 감각과 온도 감각이 떨어지고, 때로는 바로 걷기가 힘들어지면서 목이 뻣뻣한 경우 “경추 협착증”을 의심합니다. 이런 경우 환자들은 보통 “풍”이나 “혈액 순환병”이라는 말을 듣고 오랜 기간 잘못된 치료를 받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추 협착증은 디스크나 골극, 후방 인대의 골화증에 의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생깁니다. 혹은 선천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 후에 수술적 치료가 타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는 경우 신경학적인 증세가 발전하고 가벼운 외상에 의해서 사지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 : 현대병원 053-764-2000~9, <http://hyundae.e-hospitalkorea.co.kr>>

근막통증후군이란

근막통증후군은 근육이 긴장, 경련, 스트레스, 피로 등이 쌓여 근육이 뭉치게 되는 통증으로 목, 허리, 어깨쪽지와 등 쪽에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중 가장 많은 부분이며, 30세에서 49세에 많이 발생한다.

경추 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이란

섬유질과 수핵으로 구성되어 있는 디스크가 외상이나 변성에 의하여 섬유륜이 찢어져 그 사이로 수핵이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다.

경추 협착증 이란

뇌에서 팔, 몸통, 다리로 가는 신경다발인 척수가 지나가는 목뼈의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압박되면서 통증이나 감각의 이상 또는 근력의 약화가 발생하는 질환이다.